

'비주류의 승리' 계파정치 종식 닷 올렸다

■ 한나라당 홍준표호 출범 의미와 과제

총선·대선 승리, 친이-친박 갈등 풀어야

위기의 한나라당의 새 선장이 된 홍준표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쇄신과 화합'을 내세워 당의 체질 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40대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대세를 승리로 연결했다. 하지만, 비주류한 한계 속에서 당·정·청 조화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갈등 치유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는 '전투력'을 가졌다는 데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홍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집권 후반기 여권의 새로운 진용 개편에 서막이 올랐다. 일단, 수도권 출신들이 대거 지도부에 임명함으로써 당 노선과 정책기조, 당·청 관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대다수가 계파색이 얇은 데다 정치적 개성이 강해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미**=홍 대표의 4일 압승은 한나라당 당원과 대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 쇄신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40대의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역전까지도 조심스럽게 접쳐졌지만 이는 '차안 속 태풍'에 불과했다. 다만,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0대가 나경원(48)·원희룡(47)·남경필(46) 최고위원 등 3명이나 패 지도부 전체의 세대교체는 이뤄졌다.

하지만, 홍준표 체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해체나카야 할 압축과 적지 않다.

당장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감에 휩싸인 당을 추스르고 생기를 불어넣어 당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며, 대선을 위한 경선을 엄정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도 안고 있다.

이전 전대의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는 친이계의 집중 지원을 받은 원희룡 후보가 4위까지 밀린 것. 이는 현재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는 당내 뿌리 깊은 '계파정치 종식'이다.

또 홍 대표가 당이 선도하는 당·청 관계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선별적 협력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의 차별화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홍 대표는 특히 친박계로부터 두 번째 표를 목표로 받은 것이 결정적 승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박 측은 처음부터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를 야당의 공세로부터 막아낼 수 있



한나라호 새지도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에 선출된 홍준표 의원이 최고위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의원. /연합뉴스

정용화·김대식, 호남 친이계 인사 거론

■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

한나라당의 4일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됨에 따라 나머지 지도부의 일원이 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됐지만 이번부터는 개정 당헌에 따라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의 절차만 거치면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지명직 최고위원을 결정할 때

는 취약지역 인사를 우대하며, 탕평인사 차원에서 계파 안배도 고려된다.

현재 최고위원의 면면을 보면 홍 대표와 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당연직) 등 수도권 의원이 5명이고, 대구·경북권의 유승민 최고위원과 부산·경남권의 이주영 정책위의장(당연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취약지역인 호남·충청권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호남권에선 원외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 정용화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친이(친이명박)계라는 점. 때문에 호남에서 친이계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면 충청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에선 강창희·김학원 전 의원과 이관구 전 충남지사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인재 영입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아 내년 총선에 출마토록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대표·최고위원 프로필

15년 출근 변방, 당 중심으로

홍준표 신임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대표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사건을 강단 있게 수사하는 등 '스타 검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지난 15년 간 내리 4선을 하는 동안 그의 위치는 '변방'이었다.

야당 시절 '대여(對與)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데 이어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잇따라 출마해 특유

의 재치로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당내에서는 출근 '비주류'였다.

이명박 정부 탄생 후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주류 진입을 시도한 정권 초반 인사과 동과 쇠고기 파동, 친이·친박 갈등 등 난제를 패도난마 식으로 풀어가며 뛰어난 정치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57) ▲고려대 법학과 ▲부산·서울·광주지검 검사 ▲원내 부총무, 전략기획위원장, 혁신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15·16·17·18대 국회의원

◇ 유승민 최고위원

▲대구(53)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17·18대 의원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대표 비서실장

◇ 나경원 최고위원

▲서울(48) ▲서울대 법대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 ▲당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 ▲당 대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7·18대 국회의원

◇ 원희룡 최고위원

▲제주 서귀포(47) ▲서울 법대 ▲사시 34회 ▲서울지검 검사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상임운영위원·최고위원·당 쇄신특위위원장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 남경필 최고위원

▲서울(46)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경인일보 정치부기자 ▲15·16·17·18대 의원 ▲당 대변인 ▲원내 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당 인재영입위원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수사권 조정안 불만...10번째 불명예 퇴진

■ 임기 46일 남기고 떠나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엔 차동민 등 '빅4' 이어 황희철·안창호 경합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진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

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의 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합의가 깨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

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는 8월19일까지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남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면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

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후임 총장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11기인 김 총장보다 2~3년 후배인 연수원 13~14기 검찰 내부 인사가 거론된다.

차동민(52·경기·13기) 서울고검장, 한상대(52·서울·13기)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56·경북·13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환균(54·경북·14기) 대구고검장이 '빅4'로 경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황희철(54·광주·13기) 법무부 차관, 황교안(54·서울·13기) 부산고검장, 채동욱(52·서울·14기) 대전고검장, 안창호(54·대전·14기) 광주고검장을 포함한 현직 고검장 9명이 모두 청와대에 '출사표'를 낸 상태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아주 그냥 죽여줘요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법률공인) 상담료 무료 |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서민회관) |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 03-2617-5110 수원점(남문) | 03-10246-5110 의정부점(보통터리) |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 03-2329-4400 부산 시면점(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 05-1256-7200 울산점(울산네거리) | 05-26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 05-5297-6060 진주점(구.동명시장) | 05-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 05-3425-4440 상덕점(상덕네거리) | 05-3425-1511 남일동점(아래미리) | 05-3425-7575 경북 포항점(목가리) | 05-4244-5110 안동점(구.인동동) |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 05-2225-5110 광주점(백동시장) | 06-29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 06-752-6845 전북 전주점(신복터리) | 06-3252-5728 군산점(구.시정) |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 | 06-3638-5900 남원점(시정네거리) |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 04-2255-4900 충청 천안점(천안역) | 04-1553-2888 광주점(광주문수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백로) | 04-772-1177-8 충주점(삼천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2가) | 03-647-6588 춘천점(철호시장) |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터리) |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ISO 9001인증 | ISO 13485인증 |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